

삼성전자, 쉽고 편리한 사용성의 미러리스 '스마트 카메라 NX3000' 출시

Samsung

삼성전자가 가족 단위의 야외 활동과 여행이 늘어나는 여름 성수기 시즌 공략을 위해 고성능 DSLR급 화질에 휴대가 편리한 가족용 미러리스 '스마트 카메라 NX3000'을 출시했다.



NX3000 제품 이미지

삼성 'NX3000'은 두께 31mm, 무게 111g의 컴팩트한 사이즈에 전동식 파워줌렌즈를 적용하여 휴대성을 크게 높이면서도, 2,030만 고화소 APS-C 타입 CMOS 센서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NX3000'에 탑재된 이미지센서는 중급형 DSLR과 동일한 수준의 아웃포커싱과 화질 구현이 가능해 가족이나 아기, 연인 등 일상생활 속에서 고화질로 촬영하기 원하는 초·중급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가족용 카메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NX3000'에 기본 번들로 제공되는 16-50mm F3.5-F5.6 전동식 파워줌렌즈는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빠르고 쉬운 줌 조작이 가능하다. 광학식 손떨림 방지(OIS)를 적용하였으며, 35mm 필름 기준 24-77mm에 해당되어 광각부터 중망원까지 전천후 촬영이 가능

한 스마트 렌즈라고 할 수 있다.

'NX3000'은 미러팝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서 가족 모두가 담긴 위피(Wefie) 촬영이 보다 손쉬워졌다.

화면을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 '플립 온(Flip On)' 디스플레이와 링크 동작 후 2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는 '윙크샷', 별도의 수정 없이도 화사한 촬영이 가능한 뷰티페이스 기능 등 셀피(Selfie) 또는 위피(Wefie) 촬영에 특화된 미러리스 카메라다.

이번 'NX3000'에 적용된 디자인은 신제품 출시 때마다 완성도를 더해가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기존 NX 패밀리룩에 컴팩트하고 슬림한 디자인까지 더해졌다. 'NX3000'의 강력한 사진 공유 기능도 눈 여겨 볼만하다.

'태그 앤드 고(Tag & Go)' 기능을 적용하여 카메라와 스마트폰에서 일일이 와이파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필요 없이 카메라에 스마트 기기를 살짝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사진이나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 임선홍 전무는 "이번 NX3000 출시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면서도 고화질의 사진 품질에 만족할 수 있는 가족형 미러리스 스마트 카메라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삼성 'NX3000'의 출고가는 번들 렌즈 포함 59만 9,000원이며, 화이트와 블랙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소니코리아, "렌즈교환식 선도하겠다" 프리미엄 렌즈교환식 카메라 2종 공개

Sony Korea

소니코리아(대표 사카이 켄지)는 1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소니의 디지털 이미징 사업 전략 발표와 함께 프리미엄 렌즈교환식 카메라 'A77II'와 'A7S'를 공개했다.

소니코리아는 2종의 프리미엄 카메라 신제품을 출시하며 국내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3년 연속 1위, 전체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디지털 이미징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소니코리아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소니의 디지털 이미징 기술력으로 기존 카메라의 한계를 뛰어넘어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혁신적인 프리미엄 모델"이라며 "소니는 DSLR·미러리스를 포함한 전체 렌즈교환식 시장에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국내 프리미엄 카메라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77 II는 'SLR-A77'의 후속 모델로 고해상력, 고감도 저노이즈, AF 성능, 이미지 공유와 사용자 조작 편의성 등이 진화한 프리미엄 DSLR 카메라이다.

소니코리아, "렌즈교환식 선도하겠다" 프리미엄 렌즈교환식 카메라 2종 공개

A77 II는 갭리스 온 칩(gapless on-chip) 기술로 집광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새로운 2430만 화소의 엑스모어(Exmor) CMOS 센서를 장착하고 이전 이미지 프로세서 대비 3배 가량 빨라진 신형 이미지 프로세서 비온즈 엑스(BIONZ X)를 탑재했다.

A7S는 A7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다. 1220만 화소의 35mm 풀프레임 엑스모어(Exmor) CMOS 센서와 신형 이미지 프로세서 비온즈 엑스(BIONZ X)를 탑재해 높은 해상도와 선명도를 제



프리미엄렌즈교환식카메라2종공개

공한다. 풀프레임 카메라 중 가장 높은 ISO 409600의 초고감도 능력은 기존 카메라가 촬영하기 어려웠던 극한의 상황에서도 저노이즈로 높은 화질을 선사한다. A77 II 정식 출시는 28일 예정이며 출시 가격은 바디 키트 149만8000원, 표준줌렌즈 키트 234만8000원이다. A7S의 출시는 6월말 예정이며 가격은 259만9900원이다.

캐논, 광각 줌렌즈 신제품 2종 발표

canon korea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대표 강동환)이 L 시리즈 광각 줌렌즈 최초로 IS(Image Stabilizer, 흔들림 보정) 기능을 탑재한 'EF 16-35mm f/4L IS USM' 렌즈와 함께 EF-S 시리즈 광각 줌렌즈 최초의 STM(스테핑모터)를 탑재한 광각 줌렌즈 'EF-S 10-18mm f/4.5-5.6 IS STM'를 출시하며 렌즈 라인업 강화에 나섰다.



EF 16-35mm f/4L IS USM



EF-S 10-18mm f/4.5-5.6 IS STM

신제품 EF 16-35mm f/4L IS USM는 캐논의 DSLR 최고급 렌즈인 L 시리즈 렌즈 중 광각 줌 렌즈로는 최초로 IS 기능을 탑재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IS 기능의 탑재를 통해 빛이 부족한 실내 촬영 등에서 손떨림에 의한 흔들림을 억제하여 최상의 촬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초음파진동모터(USM)와 최적화된 AF 알고리즘의 채용을 통해 사진 촬영 시 빠른 속도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

EF 16-35mm f/4L IS USM는 캐논의 L 시리즈 렌즈의 장점인 고화질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양면 비구면 렌즈 2매, UD 렌즈로 구성된 12군 16매의 렌즈는 색수차 억제를 통해 줌 전역과 화면 전역에서 초고화질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한편 신형 렌즈는 ▲렌즈 마운트 부 ▲각 스위치 패널 ▲줌 링 ▲포커스 링 등에 방진·방적구조를 적용해 내구성을 끌어올렸다.

또 하나의 신제품인 EF-S 10-18mm f/4.5-5.6 IS STM 렌즈는 EOS 100D 및 700D 등과 같은 크롭 바디 제품에 최적의 광각 줌렌즈로 사용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광각 줌렌즈이다. 합리적인 가격인 30만원대로 출시될 예정이며 최대 광각 10mm의 화각을 지원하기 때문에 넓은 야외 풍경 및 실내의 공간을 한 컷에 담아내는 촬영 등에서 광각의 효과를 살리며 촬영할 수 있다. 렌즈의 길이는 72mm, 무게는 240g에 불과해 여행 및 외출 시에도 기본 렌즈와 함께 휴대해도 부담이 없다는 장점을 가진다.

EF-S 10-18mm f/4.5-5.6 IS STM는 캐논이 개발한 STM(Stepping Motor) 모터의 탑재로 AF 작동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보다 부드럽고 정확한 AF를 제공한다. 조용한 AF의 구동을 통해 동영상 촬영 시 저소음 및 빠른 AF를 구현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EF-S 광각 줌렌즈 최초로 IS 기능을 탑재해 삼각대 없이도 어두운 환경의 촬영이 더욱 용이해졌다.

두 종의 신제품 렌즈 'EF 16-35mm f/4L IS USM', 'EF-S 10-18mm f/4.5-5.6 IS STM'는 2014년 6월 출시 예정이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 강동환 사장은 "캐논은 DSLR 카메라 사용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전문가, 하이 아마추어, 입문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두 종의 광각 줌 렌즈를 출시했다."라며, "캐논은 앞으로도 렌즈 라인업의 강화를 통해 DSLR 카메라 사용자가 좀 더 다양한 렌즈를 활용해 촬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